

코로나에 막힌 구직, 할수 있는 건 창업뿐?

7월 기준 전국 자영업자 12만8000명 ↓ ... 1년만에 감소폭 4.9배
광주·전남 43만명으로 1000명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000명 ↑
무급가족 종사자 9000명 ↑ 8년만에 증가 폭 최대 ... 고용질은 하락

전국 자영업자가 지난 12만8000명 줄어들 때 광주·전남은 오히려 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없이 가족끼리 영업을 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8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 지역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질은 낮아졌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자영업자는 554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8000명(-2.3%)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 폭이 4.9배로 커진 것이다.
반면 7월 지역 자영업자 수는 광주 14만

7000명·전남 28만3000명 등 4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증가했다.
전국 자영업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전국에서는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국 13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1년 전보다 13만9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2000명 줄

어 들었지만 전남 지역이 5000명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의 격차가 컸다. 지난 7월 전국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불과 4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감소했다. 광주지역이 3000명 늘어난 반면, 전남 지역은 8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웠다.
통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일반 임금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 증가하는 편이다.
광주·전남 7월 자영업자는 소폭 늘었지만 '무급가족 종사자' 증가 폭은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전국 7월 무급가족 종사자는 1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000명 감소했다.
지역 무급가족 종사자는 7월 기준 광주 2만7000명·전남 9만7000명 등 1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임금·급료)없이 적어도 정상적업시간 3분의 1 이상을 작업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 7월 광주·전남 무급가족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광주 6000명·전남 3000명 등 9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전남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타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계원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공유주방의 입점과 창업 형태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대안 창업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 대기업 외식 브랜드들의 일부 입점과 신규 공유주방 브랜드들의 빠른 등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며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예비창업자들의 공유주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유주방에 대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공유주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공유주방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공유주방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기업형 대형 공유주방이다. 단순히 배달음식만의 주방공유가 아닌 훨씬 다양한 외식메뉴의 조리과 제과나 가정간편식(HMR) 식품 제조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다양한 주방시설과 대형 규모를 자랑한다.
두 번째는 배달음식 전문 공유주방이다. 100평(330㎡) 이상의 공간을 활용하는 중대형 형태이며 배달음식 업종에 특화된 주방의 형태를 띤다. 세 번째는 하나의 매장에서 주방과 홀을 공유해 배달과 홀 고객을 동시에 상대하는 형태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메뉴가 장점이며 주로 20-50평형 규모의 중소형 형태가 많다. 물론 더 큰 매장을 활용해 더 많은 업종과 협업을 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기존 외식업소의 영업시간대를 달리하며 참여하는 형태다. 가령 치킨호프집에서 낮에는 한식부페 형태, 밤에는 치킨호프집 형태로 운영하며 공유주방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일부 중심 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공유주방 형태다.
다음은 공유주방의 입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공유주방의 입점 형태는 크게 주방 공유형과 개별(독립) 주방형으로 나뉜다.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주방 공유형의 경우 한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의 한명이며 나머지 입점자들은 실제로는 대표지만 형식상 직원 형태로 근무를 하는 개념이다. 개별 주방형은 4-15평 정도로 독립적인 주방공간으로 분할해 사용하므로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방과 홀 공유 형태의 매장창업은 주방만 독립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출입구가 같아서 개별 사업자등록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공유주방에 입점을 함으로서 생기는 장점을 꼽자면 첫 번째는 적은 창업 비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공유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식자재와 일회용품, 포장재 등의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이며 네 번째는 저비용으로 A급 상권의 입지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에 대한 정보 및 이용 공유로 인해 배달업에 대한 부족한 노하우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이며 여섯 번째는 공유주방 브랜드의 마케팅과 입점자들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홍보비용을 줄이고 매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공유주방에 대해서 외식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각 차이는 미묘하다. 인테리어, 주방시설 등 매장 개설수익의 비중이 적지 않은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들에게는 개설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공유주방 입점형 가맹점 창업은 여전히 부담이 느껴지는 형태다. 하지만 빠른 가맹점 모집을 꿈꾸는 신규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에게는 매력적인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공유주방 창업은 공유주방 자체를 창업해서 입점료 수익을 내거나, 공유주방에 입점해 고객을 상대할 수익을 내는 2가지 형태이기에 본인의 예산과 노하우에 맞는 창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광주 숙련기술인 90명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광주시기능경기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선수단 90명이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군산과 전주, 익산, 완주 등 전북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금형 등 33개 직종에 90명이 광주시 대표로 참가한다. 위원회는 이번 대회 종합 10위 달성을 목표로 참가선수 전원 훈련비와 우수 직종에 대한 지원 등을 펼쳤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상장과 메달, 상금을 비롯해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 자격시험 실기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직종별 상위득점자 2명(팀)은 내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평가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양준일 굿즈 구경오세요" 8일 (주)광주신세계 1층에 마련된 신세계인테리어서널 '449프로젝트' 임시 매장(9월13일)을 찾은 고객들이 의류·액세서리·굿즈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트로' (복고) 열풍을 일으킨 가수 양준일이 상품 기획과 제작에 참여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스트,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중소기업 키운다

우수 창업기업 30개사 연구개발 자금 등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추진하는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마중'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지스트는 2020년 총 사업비 61억 여원을 배정받아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연계해 AI 관련 우수 창업기업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스트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투자조직 구성 및 투자금 확보, 교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이전 및 교육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교육, 제품 고도화, 컨설팅, 미국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과 자금 최대 3억원과 R&D와 연계 연구개발 자금 최대 4억원(2년)을 지원하며, 교육·컨설팅·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스트 기업지원센터는 마중프로그램 선정 기업들을 위해 지스트의 AI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스트만의 특·장점을 가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선정 기업들이 한 단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마중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공고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8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